

재가 장애인의 자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Renovation to Provide Comfortable and Independent Living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정 태 승* 정 광 호**
Chung, Tae-Seung Chung, Gwang-Ho

Abstract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disabled people, number of handicapped people who spends most of their time indoors increase. Their disabilities constrain them in social activities and bind them to indoors. But living environment built for normal people are many cases inevitably inconvenient for disabled people. People realizes that housing renovation is necessary, however problems such as financial difficulties must be solved in advance.

House renovations, to create comfortable and independent living conditions for disabled people, various thesis and documents were analyzed, along with survey through questionnaire. Results are as following.

- ① House renovation is necessary,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disabled people and inconvenience of former house form.
- ② Integrated or specialized house renovation manual is required to satisfy the different need derived from extent and type of disabilities.
- ③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for continued support is necessary.
- ④ House renovation plan for homeless disabled people is necessary.
- ⑤ Separate research on the size of space, type of space, efficiency is necessary.
- ⑥ Separate house renovation plan considering the people who lives with disabled people is required.
- ⑦ Disabilities are not personal but societal problem.

This paper is to uncover all the problems in the house renovation for disabled people. It will be used to develop house renovation manual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deal with the actual house renovation plans.

키워드 : 장애인, 주택 개조, 생활환경

Keywords : Disabled people, House Renovation, Living Environment

I. 서론

거주자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욕구 또는 요구를 주거공간에 반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의 약 5.6%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후천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 중 약 72% 정도가 무직으로 많은 시간을 주택 내에서 보내고 있으며 또한 전체의 약 62.5% 정도가 가구당 소득수준이 100만원 정도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 되어 1) 주거환경의 개선이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각 구청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에 대다수의 재가 장애인가구가 포함되어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공사를 제외한 보강공사와 난방, 급배수시설, 기타 장애의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 2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 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주택 개조에 대한 당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비하며 주택개조에 관련된 올바른 정

* 정회원, 삼육의명대학 건축설계과 겸임교수

** 정회원, 삼육의명대학 건축설계과 교수

1) 관계부처합동,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 2003년 2월

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는 지원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개조 항목이 어떤 것 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가 장애인의 주거현황을 살펴보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로 시행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재가 장애인에 관련된 정보의 획득을 위해 보건 복지부, 한국 장애인 복지 진흥회, 사회복지개발연구원등의 장애인 유관 단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재가 장애인의 주거 현황 개선과 주택개조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행사에 참석한 인원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문을 실시하였다.

III. 재가 장애인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재가 장애인의 일상적인 특성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주택개조 정책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재가 장애인의 장애 특성

1) 재가 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비율

전국의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어, 1995년의 1,053.5천명에 비해 396.0천명이 증가하였고 이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은 1,398.2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천명으로 조사되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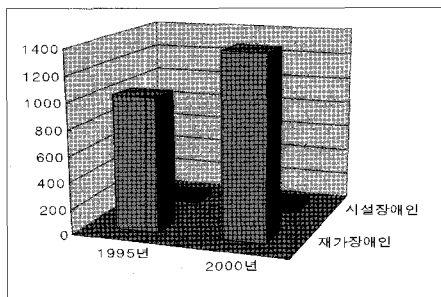


그림1. 재가 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추정치, (단위, 천명)

2) 일상 생활상 곤란한 점

재가 장애인의 일상 생활상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 구조의 불편함이 1.5%,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부족이 3.5%로 경제적인 어려움 64.7% 이나 사회생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2001, p10

활 1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으나 경제적인 부분과 같은 사항과 주택 개조 또는 편의시설 부족과 항목을 상대적으로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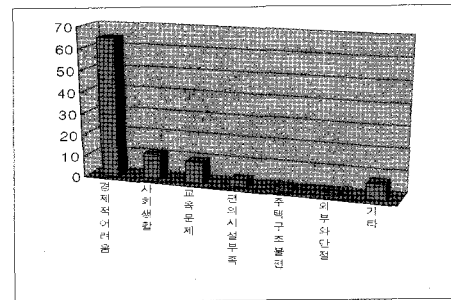


그림2. 일상생활에 있어서 곤란한 점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개조 정책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시책 3) 중 주택부문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을 개선, 보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별로 주택 설계도를 개발 보급하고, 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등을 공급(임대)시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공급물량을 일정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편의 및 자립기반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2004년부터 4년간 매년 1044억 원씩 투자 계획이 있었으나 발표 내용과는 달리 주택 개조 비용 지원 부분은 예산에서 전액 삭제되었고,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주택개조 실태를 살펴보면 강남구청, 송파구청의 경우 4)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안전점검, 짐수리 등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 가정의 안전점검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으로는 출입문턱 낮춤, 화장실 편의시설설치, 도배 등의 주거환경개선과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시설안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계층의 일부로 동일한 사회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개조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적합한 형식의 주택개조는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비의 지속적인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후원금 역시 규모가 작아 대상 가구들이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재가 장애인의 주거형태

주택을 소유한 재가 장애인은 28.4%에 불과 했고 나머지 71.6%는 무주택 장애인으로써 집주인이 아닌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주인의 동의아래 주택을 개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공청회 내용에서 발췌

4) 저소득 가정 안전점검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실시계획, 송파구 생활 복지국 내부 문서, 2001년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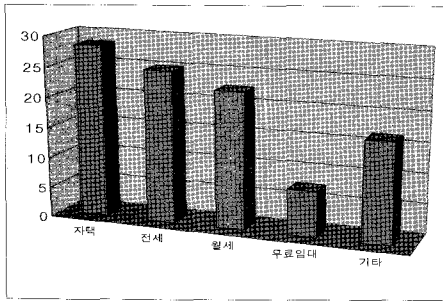


그림3. 재가 장애인의 주거 형태

5) 재가 장애인의 희망거주 형태

가족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98.3%로 주택의 개조에 있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조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시책인 공동생활 가정 (Group Home)이 장애인들에게 크게 흥미를 끌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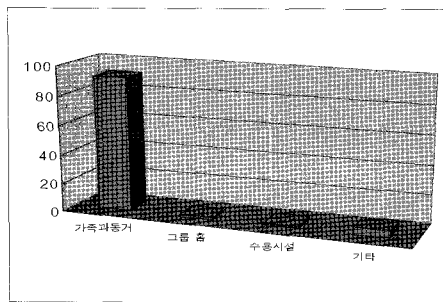


그림4. 재가 장애인의 희망 거주 형태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지체장애, 뇌성마비,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를 편의상 A 그룹, 정신지체, 정신장애, 정서장애를 B 그룹, 언어, 시각, 청각장애를 C 그룹, 중복장애를 D 그룹 그리고 기타 장애를 E 그룹으로 분류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1) 장애특성

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및 뇌성마비, 발달장애, 신장과 심장장애는 65.2 % 정신지체, 정신장애, 정서장애는 9.8%, 언어, 시각, 청각장애는 13.6%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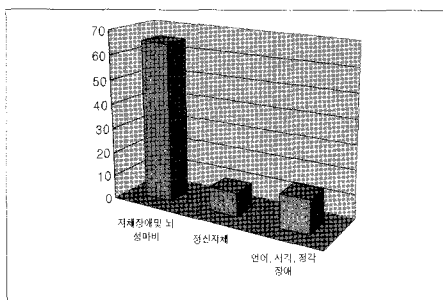


그림5. 조사 대상자의 장애 종류

장애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38.6%, 2등급 20.1%, 3등급 17.9 % 이며 장애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지체 장애 중 보행 및 손발장애 55.4%, 뇌성마비 14.1%, 시각 및 청각장애는 13.1% 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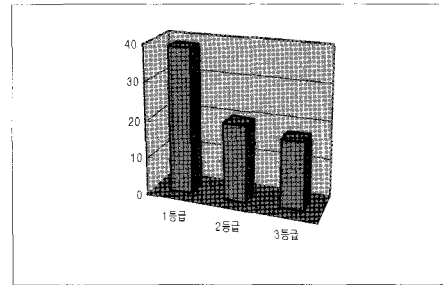


그림6. 조사 대상자의 장애 등급

지체장애 중 보행 및 손발 장애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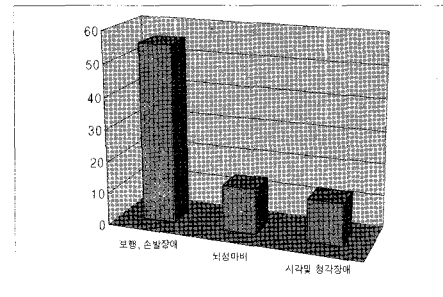


그림7. 조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

따라서 주택 개조에 있어 해당 신체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택 개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 의한 주거 환경 개선 매뉴얼이 발간되어 있기는 하나 어떻게 이를 추진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에 대한 단일 창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2) 주거유형 및 실태

장애 종류에 따른 주거 유형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그룹인 지체 장애인과 B 그룹인 정신 장애인 그리고 중복장애인 D 그룹은 조사 대상자 중 절반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C 그룹인 시각 장애인의 경우만 단독주택 거주자가 약 40% 정도로 조사되었다. 지체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은 서울시의 일반적인 거주 형태인 아파트 36.7%, 단독주택 24.9%, 다가구 35.2% 의 기준과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동주택 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거의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 능력 부재로 인하여 주거 선택의 기준이 주택의 전, 월세 가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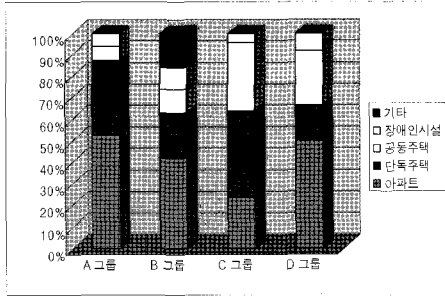


그림 8. 주거 상황

주거 소유에 대한 응답을 자가와 임대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면 절반 정도는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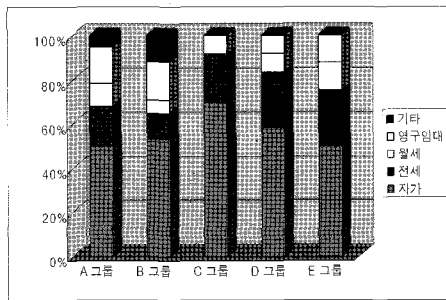


그림 9. 주거 소유형태

조사 대상자들의 주거 규모를 살펴보면 약 70% 정도가 11~31 평 정도에서 생활하고 있어 서울시의 현 거주주택의 평균 주거 면적 21.9평, 방의 개수 3.3개와 비교해볼 때 주거 규모 면에서는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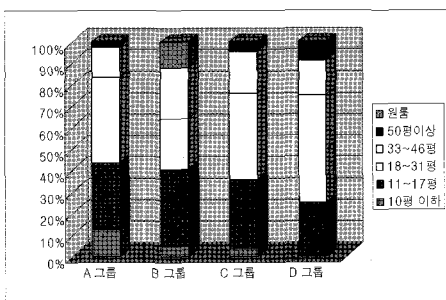


그림 10. 조사 대상자의 주거 소유형태

3. 주택 내부 환경

1) 주방

주방의 작업대는 공간 활용 및 가사 노동자의 활동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U, L 자 형의 배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작업대 사이의 활동 공간은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150x150cm를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대의 하부 공간은 바닥에서 65cm 높이 까지는 비워놓아야 하며 높이가 조절 되는 것이 좋다. 수납대의 경우 선반의 높이가 조절 가능한 것이 좋으며 40~140cm 높이 사이에는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용기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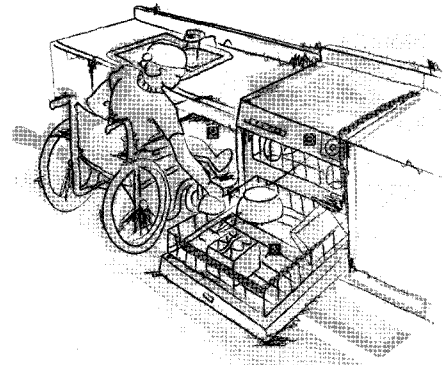


그림 11. 부엌 싱크대와 하부공간의 구성

조사 대상자의 주택에는 대부분 부엌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방에서 휠체어의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A 그룹의 절반 정도만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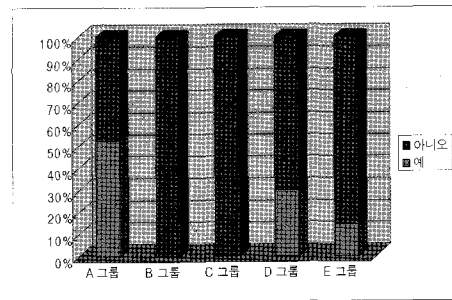


그림 12. 주방에서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장애인에게 편리한 U, L 자형 조리대의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에도 미치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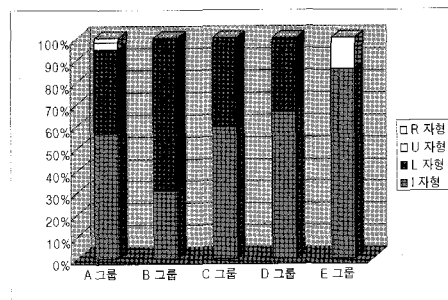


그림 13. 조사 대상자의 주거 소유형태

싱크대의 높이에 따른 문제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 약 70%가 있다고 응답하여 싱크대의 높이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한국 장애인 복지 진흥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매뉴얼,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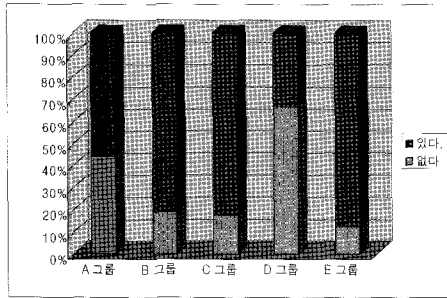


그림 14. 조리대의 높이 조절에 따른 문제점 여부

수납공간에 대한 문제점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A 그룹의 약 40% 정도가 수납 공간상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 A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36% 정도만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그룹에 비해 A 그룹의 경우 신체상의 장애에 따른 불편함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해당 문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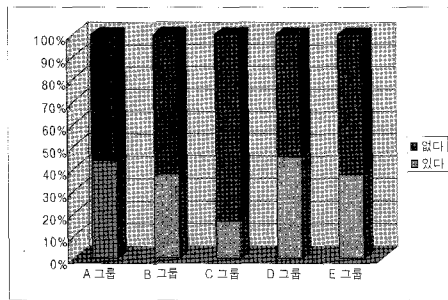


그림 15. 수납공간에 대한 문제점 여부

2) 욕실

욕실의 바닥 면은 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 미끄럽지 않도록 타일 면을 작거나 거칠게 마감하여야 한다. 세면기는 상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며 고정형의 경우 높이를 85cm로 하며 하부 공간은 65cm 정도 비워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변기의 좌대 높이는 45c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휠체어의 접근에 용이하며 다른 설비기기와 마찬가지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사용에 편리하다. 욕조의 높이는 40~45cm 정도가 적당하며 옆에는 손잡이를 75cm 높이로 연속적으로 설치하면 앉았다 일어날 때 잡을 수 있어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바닥 면은 미끄럽지 않게 처리한다. 화장실의 면적의 산정 시 변기 전면의 활동공간은 140cm x 140cm 정도 확보하여야 하며, 세면기 및 욕조전면의 활동공간도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 폭으로 150cm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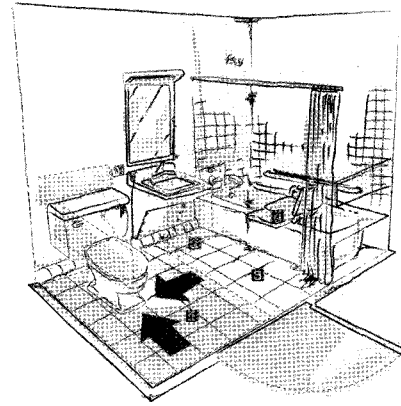


그림 16. 욕실의 구성 방법

화장실 바닥면의 미끄러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끄럽다고 응답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절반 정도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도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로 화장실을 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은 의외의 결과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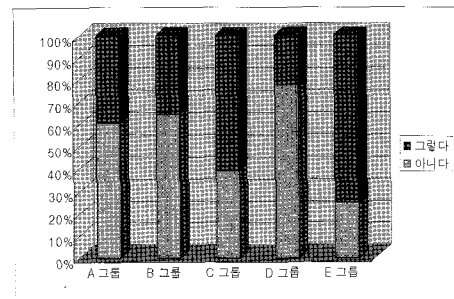


그림 17. 화장실 바닥의 미끄러움

욕실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체 그룹의 평균치가 약 50% 정도로 나타났으나 A 그룹의 경우 좁다고 응답한 경우가 60%에 달해 휠체어 등의 기구 사용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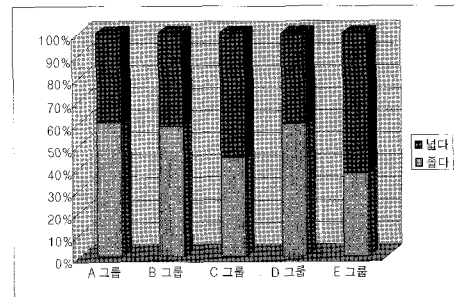


그림 18. 욕실 크기

세면대의 높이에 대한 응답에서 적당하다는 응답이 높거나 낮다는 응답에 비해 40% 정도 높아 세면대의 위치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A, D 그룹의 경우 40% 정도가 높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6) 한국 장애인 복지 진흥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매뉴얼, 2000년

로 보아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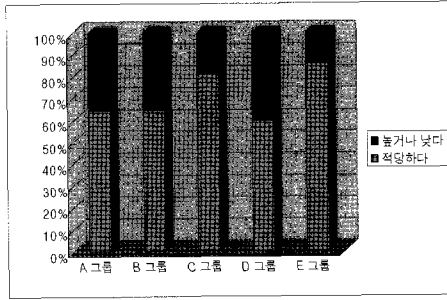


그림 19. 세면대의 높이

변기 높이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에서 적당하다는 답변이 조사되어 변기 설비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3) 거실과 침실

생활공간의 중심이 되는 거실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회전공간이 140cm x 140cm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침실 또한 동일한 목적의 동일 공간의 크기가 필요하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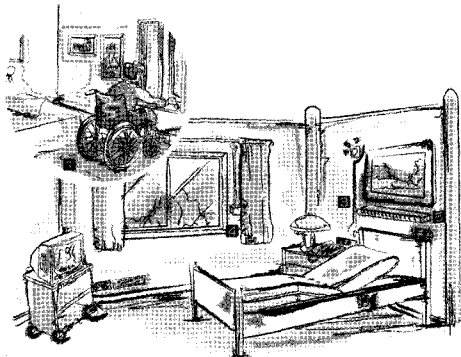


그림 20. 침실의 구성

거실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그룹의 약 30%가 어렵다고 응답하여 공간 협소와 공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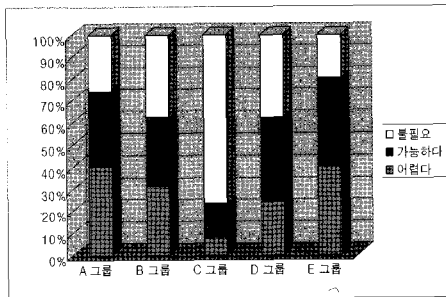


그림 21. 거실에서 휠체어 사용

침실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그룹의 약 30%가 어렵다고 응답하여 거실과 마찬가지로

7) 한국 장애인 복지 진흥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매뉴얼, 2000년

지로 공간 협소와 공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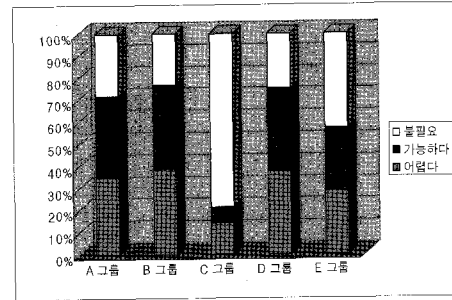


그림 22. 침실에서 휠체어 사용

정확한 호별 방문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의 구성 형식 또는 배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조사 대상자중 일부의 경우 내부 공사(공간의 배치 형식의 변경, 수납공간의 확보 등)를 통한 일정 공간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후천적 장애인의 수적 증가와 함께 점차적으로 재가 장애인의 수도 늘어가고 있다.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주택내부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 재가 장애인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개조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문헌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주택 개조를 위한 기초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재가 장애인의 수적 증가와 주택 구조의 불편함에 따른 주택개조가 필요하다.
- ②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에 따른 별도의 또는 통합할 수 있는 형식의 주택 개조 매뉴얼이 필요하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④ 무주택 장애인들에 대한 주택개조 방안이 필요하다.
- ⑤ 주거 규모와 공간의 형태, 효율성 그리고 개별 실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 ⑥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에 대한 별도의 주택개조 방안이 필요하다.
- ⑦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재가 장애인들의 주택개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밝혀 차후의 주택 개조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택개조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01년
2. 사회복지개발 연구원, 재가 장애인 복지실태와 개선 방안, 2000년
3. 한국 장애인 복지 진흥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매뉴얼, 2000년
4. 최 재순 외, “여성지체 장애인 가정의 주택 개조 실태 및 거주자의 물리적 주거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11호, 2001년
5. 김 소영 외, “시각 장애인을 고려한 주거의 실내환경 계획”,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2호, 1998년 10
6. 권 오정 외, “지체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주택개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권 11호, 2001년 11
7. 오 찬옥, “공동주택 거주 지체장애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주거환경 특성요인”